

체제고수와 현실결합의 교차로

변화와 적응의 소용돌이 국제무대

기획시리즈(2)

— 소련사태후 국제질서의 변화(下) —

I. 머리말

지난 8월19일 '소련사태', 9월17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현상적 차별성에 불과하고 본질적 연관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일련의 역사적 대사건들이 최근 국내외정세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8월의 '소련정변'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실패한 소련사회주의의 내부 위기의 폭발과 소련사회주의의 급속한 해체라는 직접적 의미 외에도 그것이 미치는 국제정치적 파장과 충격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우리는 군부쿠데타 실패 이후 소련공산당의 몰락과 연방해체 등으로 급변하는 소련사태의 폭발적 전개가 소련의 '탈사회주의화'와 '탈냉전화', 그리고 '자본주의체제로의 급격한 편입'을 가속화함으로써 초래되는 미국 주도의 '신세계질서'로의 급속한 이동과 이러한 최근 국제질서의 재편과정 속에서 '잔존하는' 사회주의 4인방(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그 중에서도 동북아 정세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가능성 및 향후 전망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 국가의 변화전망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정세에 직접적인 영향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는 우리민족의 운명, 그리고 조국통일의 전망과 직접 관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 민족의 현실과 전망 속에서 올바르게 고찰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북한의 대응과 변화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한 중국, 북한의 대응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시기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분명한 해답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아가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한 세계 인류사 발전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한 세계관 재정립의 문제, 즉 세계변화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정세를 올바르게 고찰하기 위해 현시기 세계인류사 발전의 핵심문제를 근본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현대적 인류의 전개과정에서 최고의 현안문제는 민족주의의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세계체제의 기축을 형성해온 소련사회주의의 약화와 미국제국주의의 강화라는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그속에 잠재해 있던

'민족자주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세계질서 변화의 추동력으로서의 사회주의권의 변형과정이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건설의 '자주노선'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현존 사회주의질서의 해체위기는 보수-혁신, 공산주의-자본주의의 대립관계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그속에는 사회주의의 물질적 발전과 사회주의의 소유관계 개선의 문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민족자주노선의 결합문제, 국제적 반제국주의와 대 서방외교협력노선의 결합문제, 사회주의내부의 소수민족문제와 연방제와의 관계문제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중의 자주성을 올바르게 실현시키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위기와 실패, 그리고 이로인한 다극 중심의 제국주의질서의 강화 및 제국주의와 식민지 민중간의 대립격화를 그 기본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세계정세의 급변은 사람의 자주성 실현에 민족단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대운동조건을 극명히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세계정세의 변화를 고찰해야 하는 인식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정세를 비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저널리즘적인 평론이나 무당파적인 객관주의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소련사회주의의 몰락을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한 여타 사회주의나 라의 종말로 환원하려는 '붕괴론적' 사고와 소련사태로 이후 운동의 전망을 포기하는 '사회주의 대국주의'의 잘못된 관념과는 철저히 싸워야 한다. 개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오직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현대운동의 조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관점은 오직 자기머리로 사고하고 제 힘을 믿는 독자적 자주성을 견지하는 자세, 즉 민족제일주의와 민족자주노선의 철저한 견지이다. 그럴 때만이 모든 사업에서 원칙성, 일관성, 구체성을 잃지않고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자기 나라 인민의 의식적, 조직적 역량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II. 최근 국제정세의 기본특징

최근 몇년간의 세계정세의 흐름은 세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1. 중립으로 한 냉전구조→균형상태의 탈냉전구조→미국주도의 신세계질서 구조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985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오늘날 급속하

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서를 '탈냉전(Post-Cold War) 세계질서'라고 부른다. 냉전을 2차대전 이후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양대진영간의 군사적·이념적 대결상태라 한다면, 냉전은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온 89~91년을 기점으로 하여 분명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이상 '냉전-대립-신냉전-신대립'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냉전 자체가 붕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 자체가 끝났다 하더라도 세계평화의 시대는 아직 요원한 것이다. 왜냐하면 결전전쟁의 경우 냉전적 질서가 그 자체로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열전'을 낳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소'를 대립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냉전의 종식은 세계적 수준

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이 과정에서 포착되는 평화는 결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냉전=평화'라는 도식은 단지 '유럽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탈냉전'하에서 서유럽지역, 특히 제3세계는 새로운 긴장과 대립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즉 세계정세는 유럽의 평화와 결점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세 등 제3세계 지역의 긴장과 결합하면서 '제로섬'의 법칙을 재현하고 있

는 것이다. 더 비판적으로 말하면, 제3세계의 긴장이 유럽평화의 토대로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없지않다. 89-90년에 걸쳐 계속된 사회주의권의 혼란과 붕괴에서 시작하여 90-91년 초에 걸친 걸프전쟁, 91년 8월 '소련사태'로 인해 국제정세의 성격전환이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탈냉전'시대 신국제질서가 보여주는 기본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냉전종식 및 양극체제의 해체로 말미암아 국제정치무대에서 미국과 소련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미국이 경제력의 상대적 퇴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인 정치군사력을 배경으로 결점 이후의 '신

세계질서' 구축의도를 일정하게 관철시키고 있는 반면, 소련은 국내의 정치,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국제적인 지위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둘째, 독일, 일본의 급부상으로 '정치적 다국화'가 탈냉전시대의 기본적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동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정치적 발돋움과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셋째, 경제블록화 및 지역주의화 추세와 함께 '신중상주의'라고 묘사되는 선진제국들간의 경제적 갈등이 점차 국제적 차원의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

로 '탈냉전의 역설', 즉 서방선진제국들의 이해에 따라 여러 제국, 제민족의 운명과 이익들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간섭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구국가, 시장경제 제도 도입으로 체제 붕괴 가속 '신사회주의의 연맹' 결성... 중국의 난국 타개 자구책

III.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의 대응

이와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분명 아직 대외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의 내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내부적 통합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책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현존사회주의의 일반적 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은 자본주의진영의 공세적 봉쇄 속에서 자주적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려는 원칙과, 경제적 난관과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현

위해 다음 과제로 중국·북한 등의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제국주의 진영의 의도적 관심과 실질적 공세로 인한 긴장과 대립국면이아말로 현대적 국제정세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소련사태로 인한 최근 국제정세의 급변이 초래하는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위기는 대단히 구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미국 등 서방자본주의 진영에 의해 교묘히 활용되면서 사회주의국가들이 직면하는 압력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 나타날 것이다.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공세는 그러한 사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중국, 북한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하여 '중국의 소련화'나 '북한의 알바니아 또는 루마니아식 붕괴'를 예견하는 견해들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적 관성'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사이의 역사적 차별성, 그리고 이들 국가의 발전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이고 외제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사실상 중국과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가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고한 내적 구조와 체제통합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신냉전시기였던 1980년대 초부터 개혁·개방을 서둘러 오늘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고, 북한

글 심 는 순 서

1. 소련사태후 국제질서의 변화(上)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2. 소련 사태후 국제 질서의 변화(下)
—중국·북한을 중심으로
3. 국제질서 변화와 제3세계
4. 한국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변화
5. 한국의 무역 및 국내외 경제 전망
6.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대응

실주의적 정책변화를 동시에 결합할 수밖에 없다.

우선 소련사태의 결과로 중국 사회주의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대단히 큰 것이다. 특히 1989년 6·4천안문 유혈사태를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이번 소련사태가 중국에게 주는 충격은 지극히 실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국의 위기감은 '사회주의노선의 고수'를 기초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일련의 조치들과 심각한 사태에 대한 사전대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국군부의 예민한 움직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위기관련에 대해 하여 사회주의체제의 고립을 막기 위해 북한, 베트남, 쿠바 등과의 관계진전을 통한 국제적인 '신사회주의연맹' 결성을 시도하려는 모습에서도 중국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변화된 정세에 대한 방위적, 수세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경제, 사유제 등의 부분적 허용을 합리화하는 소위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 근거하여 수행된 개혁정책의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의 부패, 개혁과-보수파 간의 당내 분열양상, 지식인 등 시민사회 세력 성장과 정치개혁의 요구 급증이라는 국내적 갈등요인으로 인해 중국

◇ 북한은 최근의 위기관련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식 사회주의노선 견지와 UN가입 등 현실주의적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현재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즉 자립적 민족경제의 내재적 한계라는 부문과 국방부담에 의한 경제발전의 지체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최근 동북아정세의 관계 변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대외경제관계의 취약성에 비롯되고 있는 북한의 자립적경제건설노선의 한계는 조-일수교의 행보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국방비부담에 의한 경제발전의 제약문제는 군국평화정책의 강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진행되고, 걸프전쟁과 8월 소련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두드러진 동북아정세의 변화가 북한정 책변화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약화와 미국의 강화라는 국제관계의 변화는 북한의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켰는데, 이는 주로 미국-남한정권에 의한 대북 고립화 및 흡수통합공세에 대한 유언한 대응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적 통일성'을 통해 형성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부응집력과 체제안정감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V. 결론과 전망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붕괴로 야기되고 있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질서재편의 일반적 방향은 지역적 특수성을 매개로 하여 동북아 한반도정세의 역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북한 등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소 수교,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조·일 수교 움직임, 활발한 조·미접촉 등 지역정세의 변화는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를 개척과 개방의 방향으로 강제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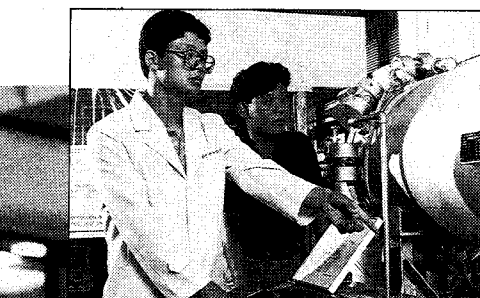
그러나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와는 상이한 역사적 특수성과 발전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의 나름대로 양국간의 협력진전을 모색하면서 조·일 수교의 설정과 인민대중의 요구수준에 맞는 자주적 사회주의건설노선 고수의 원칙과 대외경제관계의 취약성과 국제정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변화를 밀접히 결합해나갈 것이다. 또한 민족해방적 위업과 가치를 대단히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선진자본주의진영의 공세에 의해 부각될 수 있는 제3세계의 민족문제를 제국주의의 일방적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토대로 만들기 위해 '반제 통일 전선적' 연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 태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대우가 있습니다

“형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 형이 근무하는 실험실에서 —

▶대우중공업 최우철 (우주항공 연구소 항공기 소팀장) 시험과 공학도인 동생 최성철군.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고생이야 객지에 나와 있는 형이 더하죠. 이제 우리 항공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던데 언제쯤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대우는 이미 고유모델 항공기 생산을 위한 기본 설계능력부터 항공기술의 최첨단인 첨단 복합소재 개발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을 갖춰놓았고, 게다가 최근에는 위성통신 분야에서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 요청을 받을 정도란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안에 항공기는 물론 한국최초의 인공통신위성이 발사되는 것을 보게 될거야.”

“형, 흔히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대학시절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말야.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얼마만큼 창조적으로 응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대학시절 이론적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지.”
“알았어요, 형. 남은 대학생활 열심히 노력해서 형 못지않은 신기술 창조 주역이 되고야 말겠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자기개발에 힘쓰며,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